

Style 조선일보

APRIL 2022
vol.236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세이셸의 외딴 섬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미국 플로리다 걸프 해안



코스타리카 코코스 섬을 탐험하는 실비아 얼



전 세계 곳곳에 130개 이상의 호프 스팟이 있습니다



실비아 얼과 자원봉사자들, 세이셸의 외딴 섬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모블라 가오리,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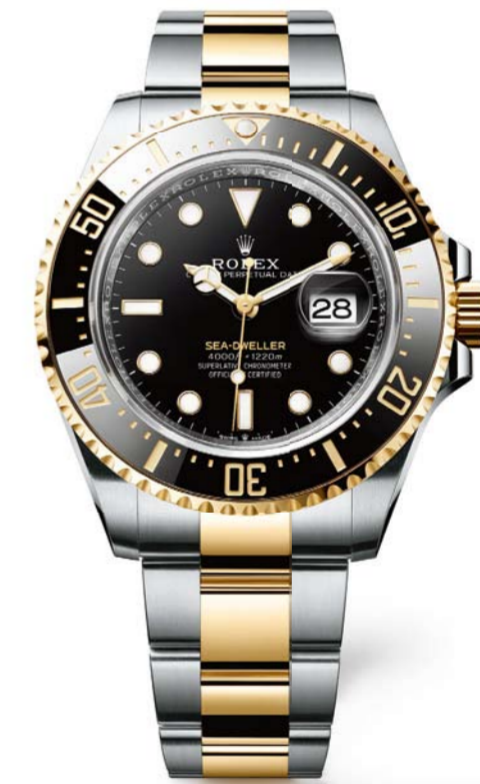


바다사자, 에라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함께 지켜갑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모든 바다와 대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 공동체들도 그들의 생활터전인 바다 생태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위해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탐험가이자 해양생물학자인 실비아 얼은 이들과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이 설립한 환경보호단체 미션 블루(Mission Blue)를 통해 현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130개 이상의 호프 스팟(Hope Spot)을 만들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비전. 롤렉스는 이 비전과 함께 변함없는 지구를 위한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변함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Perpetual #변함없는탁월함



OYSTER PERPETUAL SEA-DWE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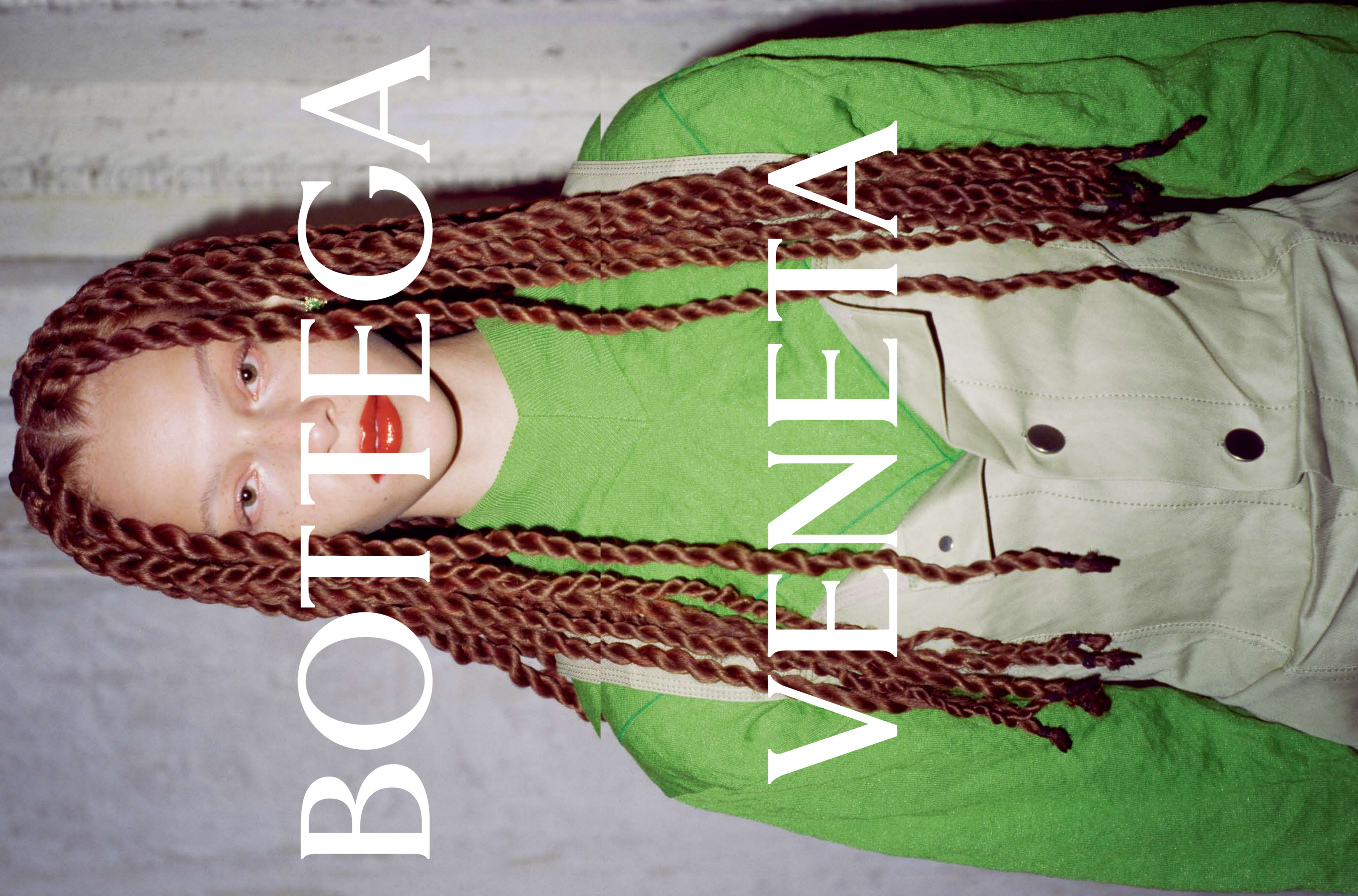


롤렉스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하려는 미션 블루의 목표를 후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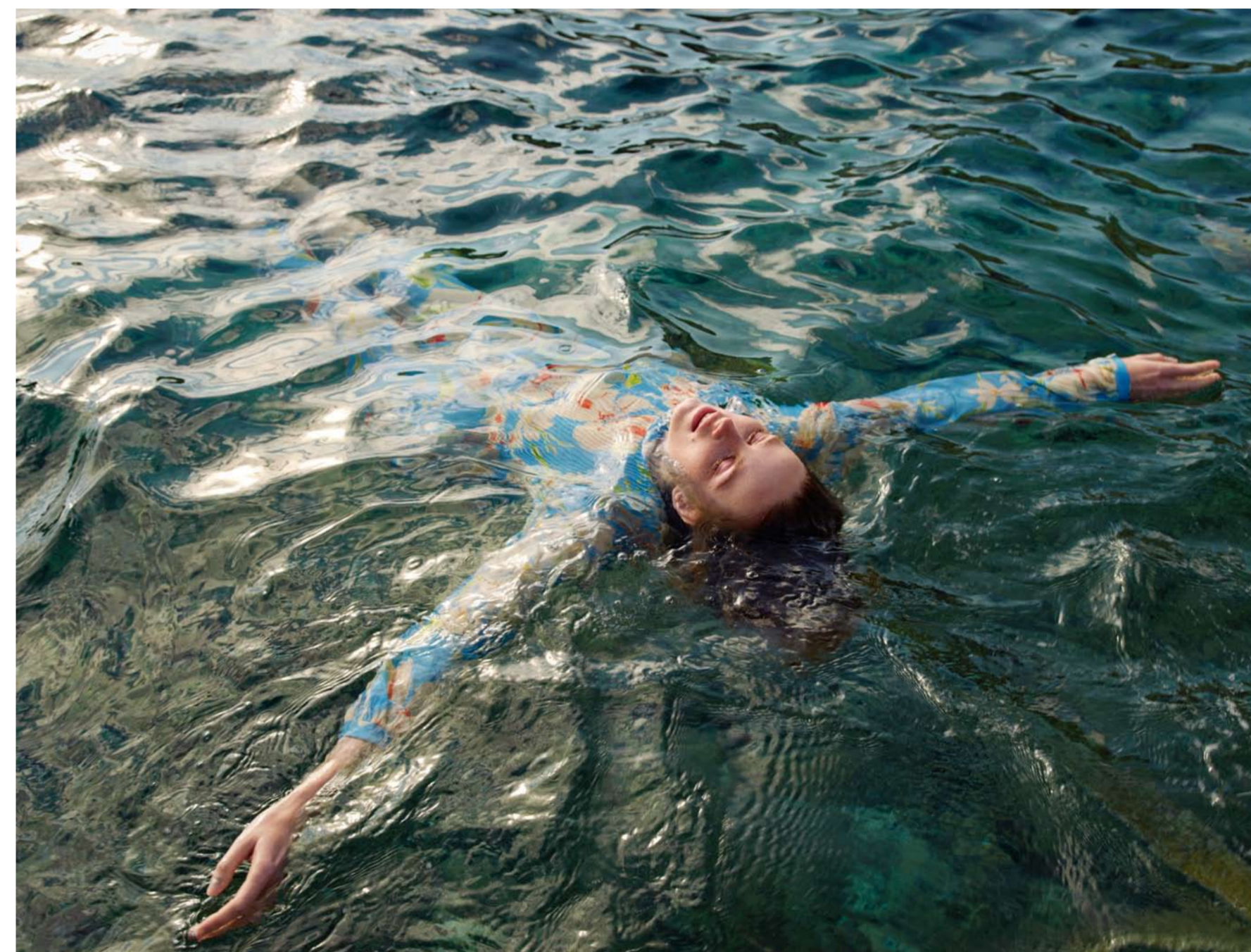
BOTTLEGA

VENTURA





loropiana.com



 *Loro Piana*



POIRET

INTRODUCING
TEINT DE SOIE

WWW.POIRET.COM



18



21

24



반클리프 아펠의 아이콘 작품인 자프 네크리스는 왕자 공작 부인이 재단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1960년에 최초로 제작되었다. 지파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오픈해서 네크리스로 착용하거나 닫아서 브레이슬릿으로 연출할 수 있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문의 1668-1906

14



- 18 **A BIG AND SMALL WORLD** 4월 12일 가나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at that time)전은 로버트 테리엔(1947~2019)이 작고한 이후 처음 열리는 개인전이자 작은 회고전의 성격을 띤다. 평범한 일상의 오브제를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의 작품으로 빚어내 관람객으로 하여금 초현실적인 풍경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는 체험의 미학으로 주로 알려진 테리엔의 작업 세계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폭넓고 풍부한 면면을 지니고 있음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전시다. 오는 5월 5일까지.
- 20 **SPACE IN FOCUS** 동시대 현대미술계의 첨예한 면면을 반영하는 작가주의로 유명한 글래스톤 갤러리가 서울에 상륙했다. 개인전의 주인공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물론 심미적 오라까지 갖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 21 **EXHIBITION IN FOCUS** 원연한 불기운이 물씬한 요즈음, 세계적인 가정들의 전사가 앞다퉈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리만아핀 서울의 래리 피트먼(Lari Pittman) 개인전과 탕 칸템포라리 아트 서울 스페이스의 자오자오(Zhao Zhao) 개인전 등에 이어 얼마 전 아모레퍼마픽 미술관(APMA)에서는 현대 사진의 가장 안드레아스 가스키(Andreas Gursky)의 대규모 개인전이 국내 최초로 막을 올렸다. 국제갤러리에서는 우고 론디논네(Ugo Rondinone) 개인전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 22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지속 가능한 관행은 이미 많은 디자이너에게 일반적인 표준이 되었고, 오랫동안 고착된 비즈니스 방식을 추구하던 럭셔리 기업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깨끗한 길을 지향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넘어 '필수'환경 시대인 만큼 기업들의 진정한 실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 24 **THE COUPLE** 블랙 & 화이트의 모던함과 데님의 시크한 반전 매력 이 함께하는 2022 봄, 여름 카탈로그.
- 32 **COLOR OF ADVENTURE** 소재부터 디자인, 워터메이킹 기술력까지 고루 갖춘 오메가. 이번 시즌엔 컬러를 더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상했다. 오묘한 매력의 다이얼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는 남성 워치, 스피드마스터와 액세서리로 손색없는 개성에 우아함까지 부여 할 여성 워치, 컨스텔레이션을 만나보자.
- 34 **CODE STEEL** 강인하고 순수한 면모를 지닌 스틸 브레이슬릿 워치.
- 35 **EXPLORE GLACIER**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 몽블랑은 브랜드의 근간이자 귀중한 유산인 '탐험 정신'으로 무장한 시계들로 눈길을 끌었다.
- 36 **FACE THE SUN** 태양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긴다. 프리미엄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 37 **BASE HIT** 에센스 하나로 해결하는 볼살 피부 고민!
- 38 **EDITOR'S PICK** 부쩍 건조해진 날씨에도 끄떡없는 피부를 유지시켜 줄 이달의 뷰티템.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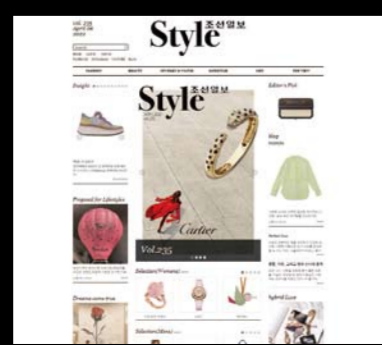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36 April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외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장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필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혜·재민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BELLE EPOQUE COLLECTION
DAMIANI.COM

롯데 에비뉴엘 본점 02 2118 6131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141 • 롯데 부산점 051 810 4165 • 롯데 동탄점 031 8036 3619
 신세계 본점 02 310 1533 • 신세계 강남점 02 599 1924 • 신세계 대구점 053 744 1924 • 신세계 대전점 042 607 8110 • 신세계 경기점 031 695 2049
 현대 본점 02 515 1924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79 • 현대 대구점 053 245 2294



하프 앵커 체인, 직사각형 케이스와 정사각형 다이얼의 조합이 아이코닉한 케이프 코드. 여7에 에르메스 특유의 미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다이얼을 선보이는 케이프 코드 크레프스콜 라인인 신제품을 소개한다. 그래픽 아티스트 탄-용 레의 작품 '형준을 담아낸 매혹적인 비주얼로 나노 기술과 결합한 신비로운 제품이다. 마이크로 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캔버스로 삼아 미묘하고 독특한 색조를 나타내며, 에르메스 시계 공방에서 제작한 내아비 블루 송이 자갈 스토프를 장식해 하이엔드의 품격을 부여했다. 9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황혼의 미학

SKIN SAVER

답답한 마스크 속 피부를 편안하게 보정해주는 아이치는 톤업 프라이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글락소보 보메 브로이트닝 안티서 배일 SPF 38 PA+++** 고급스러운 잔잔한 광채를 더해줄 스카이어 선크림을 함유한 프라이머로 라이트 핑크 톤이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환하게 밝혀준다. 30ml 7만5천원, 문의 080-564-7700
다음 프레시나지 라이트-안-화이트 르 프르텍터 UV 마세탈 블레이쉬밤 SPF 50+ PA+++ 스트레치-필름 기술을 적용해 움직임, 땀, 마찰 등에 맞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케어하고 보호하는 BB 크림 30ml 14만8천원대, 문의 080-342-9500
구찌 뷰티 세럼 드 보메 실크 프라이밍 세럼 감각적인 질 포폴라가 피부 결함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고 반들거림을 잡아주어 피부 톤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연출해준다. 30ml 7만5천원, 문의 080-850-0708
포토그래피 박재용 에디터 상영인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E THE JOY

세계 행복의 날인 3월 20일 프레드에서 새로운 캠페인 'Live the Joy'를 론칭했다. 청량사 프레드 시무엘이 사랑한 프랑스 리비에라의 햇살 아래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을 기념하는 캠페인이다. 새벽에 연인과 함께 물에 뛰어드는 상쾌한 순간부터 해변에서 노을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결혼식까지, 프레드는 아름다운 소박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7장의 사진과 다양한 미니 필름으로 담았다. 이 캠페인을 통해 프레드의 아이코닉한 포스텐, 상스 인피니, 프리티 우먼, 파르 이유르 컬렉션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4-3721



보랏빛 향기

라벤더 향기를 품기 위한 에이스트 주얼리, (왼쪽부터) **프레드 탕드 슈르르 링** 애반한 카보숑 컷 에이스트를 애반으로 하고 주변에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80개를 세팅해 광채를 더욱 극대화했다. 1천2백59만원, 문의 02-514-3721
다음 파인 주얼리 로즈 다음 프라피엘라 스몰 모델 링 만개한 장미꽃을 모티브로 한 에이스트 아름다게 보석과 장미 영감을 형상화한 핑크 골드 링의 사랑스러운 디테일과 볼륨감이 돋보이는 제품.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소피드 인베스티먼트 컬렉션 링 골드 케이퍼에 에이스트를 담아내 고귀한 존재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구현했다. 연꽃에서 영감을 받은 유려한 곡선을 자랑한다. 4백74만원, 문의 02-6906-3390
포토그래피 박재용 에디터 아우미



SMALL BUT BIG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패션 스킨 리더 굿즈,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벨트 백** 하트 세이브가 사랑스러운 벨트 백, 부드러운 텍스처로 재질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chanel.com
루이 비통 파티 도핀 암 브로이슈릿 하위스의 상징적인 도핀 백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 아이코닉한 수납함 수 있으며,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부착해 손목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54
다음 카고 린스틱 홀더 특유의 캐주얼 패턴을 적용한 핑크빛 카트 스킨 소재의 린스틱 케이스로, 메탈 슬더 스트랩까지 갖춘 앙금한 미니 백, 1백만원대, 문의 02-3480-0104
포토그래피 박재용 에디터 아우미

포르쉐 919 스트리트 등 명차 퍼레이드



포르쉐의 전설적인 모델 18대가 공감을 수놓고 있다. 크게 3개의 테마로 나누는데, 헤리티지 존에서는 '550 스피아 더, 포뮬러 2 슈퍼, '356A 스피드스터 등 7대의 전설적인 스포츠카, 모터 스포츠 존에서는 핑크 피그(pink pig)라는 애칭을 지닌 포르쉐 917/20을 비롯해 주요 대회에서 우승한 6대의 레오싱카, 그리고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과 고성능 하이퍼카 콘셉트 모델 919 스트리트가 제1차의 자태를 뽐낸다. 특히 2020년 <포르쉐 언센(Porsche Unseen) 디자인 북>을 통해 처음 소개된 콘셉트카 919 스트리트는 한국인 디자이너 정우성 씨가 외판 디자인에 참여한 모델로 24시간에서 2회 연속 우승한 919 하이브리드 레이싱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전시 기간이 짧은 점이 아쉽다. 4월 22일까지.

가볍게, 경쾌하게

패티트 레디와 에시, 스웨이드 등 실용적인 소재를 적용해 가볍고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호킨의 새로운 스니커즈, H597! 날렵한 실루엣과 더불어 다채로운 컬러 조합과 역동적인 곡선이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핑크 혹은 그린,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72만원, 문의 02-540-0523



SHINE LIPS



백여개의 시그니처 린스틱인 루주 백이레 플레어에서 네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된다. 투명하고 선명한 컬러감과 고풍택 쉬 텍스처로 입술에 크리미하게 발리며 반짝이는 린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이 린스틱은 입술의 온도와 상태에 따라 각각의 입술색에 딱 맞는 맞춤형 컬러로 매칭되는 틴트를 함유해 어떤 피부 톤이나 입술에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을 지녔다. 특히 물을 머금은 듯한 플럼핑 효과로 봄, 여름철 휴양지에서 비르기에 딱 일맞다. 2.5g 6만8천원, 문의 02-310-5025



마법의 정원

1906년 설립한 이래 자연과 상상속 세계, 아름다운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스타일로 수많은 작품을 선보여온 반클리프 아펠.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자연을 향한 서정적인 비전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와 타임피스 작품이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특별 공개되었다. 반클리프 아펠은 이 아름다운 피스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프랑스 아티스트 시를로트 가스토와 협업해 그래픽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달빛 아래 마법의 정원을 구현했다. 이 정원은 매종의 시그니처 모티브 중 하나인 페아리 클립부터 월라핀 세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질스톤으로 표현한 작품뿐 아니라 반클리프 아펠의 헤리티지 컬렉션까지 다양한 작품이 함께했다. 이 밖에 다채로운 하이 주얼리 피스와 이트와 하이 컬렉션이 시의 결합이 돋보이는 위치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문의 1668-1906

SUSTAINABLE VISION

4월 24일의 달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리퍼지트로 출시한 스타 마리아 노벨라의 프로뮤오 페르 앵트엔테, 라틴 우드로 재탄한 디퓨저 스틱으로 플라시틱 사용을 줄였으며, 기존 패키지는 88% 가벼운 무게와 유리병에 꼭 맞는 사이즈로 종이 사용량도 줄였다. 더불어 공정을 최소화한 투명 유리병으로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지니지 않은 사용, 재활용성을 높인 착한 이터널, 유원을 비롯해 아시아 등 각 대륙에서 영감을 받은 다섯 가지의 매혹적인 리퍼지트를 완성했다. 250ml 13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스트래치 비스코스 피케 니트 소재로 제작한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디올.

아세이드트 기초 아이 선로리스 가격 미정 셀린느.

캔버스 사넬 미디엄 백, 27x22cm, 38만9천원 로렌 탈프 로렌.

나파 양귀죽으로 제작한 화이트 브로이슬릿 파우치, 25x10cm, 1백90만원 로에베.

그래비 아텔루스신그 웨이퍼 (97x73cm) 토크루비온.

피롤리도렌자의 활기찬 조합이 돋보이는 IT 스웨이드 신발은 99만원에 토크루비온.

캐주얼 스타일을 대담하게 표현한 카본 스페셜 블랙 모노그램 가격 미정 샤넬.

for her Selection

아웃도어 활동을 더욱 스타일리하게!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다이얼 안에서 움직이는 달신 다이얼은드가 특징인 해피 스포츠 쿼츠 에디션 1천만(999만원) 쇼파드.



핑크 호라이즌 와이어리스 이어폰 가격 미정 루이비통.



피트로 클래식 스틸 심플 클립 이어링 3백만원대 루비론.



카드 스킨으로 제작한 캘리 포켓 벨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SERIALE 2.0 (999) 아이세탁 용인 아이티 아이티



아이코닉한 아이쿠아 블루 상단 로고 쿠레 가격 미정 프리다.



뉴발란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화이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미우 미우.



탈라 기술이 반영된 디얼링에 연속 기능인 (노드)가 세팅 1백90만원 2 용량 (182).



방수 코팅을 준 워셔블 로우 삭스 50만원대 가니.

디올 02-3480-0104 셀린느 02-549-6631 로에베 02-3479-1785 토크루비온 02-6203-0199 로렌 탈프 로렌 041-412-9271 사넬 080-805-9628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2-6622 2 용량 (182) 080-311-0000 루비론 02-3479-6028 가니 02-6911-0734 미우 미우 02-3218-5320 루이비통 02-3432-1854 프리다 02-3218-5320 쇼파드 02-6905-3390



PRADA

for him
Selection

액티브한 주말 나들이를 위한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뛰어난 장구력을 지닌 레더 스니커즈
1백13만원 2층볼레르 1952.

올리브 컬러 퍼플 스몰 방백,
24X16cm, 2백90만원 로아베.

원장 친화적인 에디션 스텔로 재팬
미시타스 워터레저스 글러브
세탁 배, 33X5.5cm,
1백10만원 몽블랑.

다들 블랙 레더 브레이슬릿 15만원 연호오오
이르미니 by 파슬코리아.

코튼 소재로 재팬 볼호와 시벨린 스텔로 재팬,
에디터 아카이.

신용카드 좋은 인형과
스피커로 재팬 NA
간단한 연호오오.

내돈방과
코르크 소재를
조합한 바치 라켓
가격 미정 에르메스.

상징적인 모노그램
패턴을 입힌 킹 사이즈
토일라트리 백, 28X16cm,
가격 미정 루이비통.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춘 알파 브라보
내비게이션 백팩,
35.5X40.5cm,
72만원 루이비통.

신호표 친화적인 환경을 지닌 레더 스니커즈 데오라네 스텔로 재팬 시벨린 스텔로 재팬.

네티즌 02-790-0798
몽블랑 1670-4810
몽블랑 1670-4810
방안용품 02-545-1390
토즈 02-3438-6008 로아베 02-3479-1785
렌디 02-514-0652 언더아어 02-516-1996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비통 02-3432-1854 불가리 02-2056-017
호간 02-3479-1593 샤넬 뷰티 080-805-9638, chanel.com 루미 02-6905-3885
2층볼레르 1952 800-311-0000 엠포리오 아르mani by 파슬코리아 02-540-1115

베르모로 11X 헤르세 67095만원
영인물품소.

로키사 끈 재킷 910드 렌즈 28292만원
렌즈.

본은 그릴 캠프는
선미인스페르
801000드 스니커즈
58만원 호간.

내돈방과
코르크 소재를
조합한 바치 라켓
가격 미정 에르메스.

ALLURE
HOMME
SPORT
CHANEL
DEODORANT
VAPORISATEUR SPRAY
100 ml 3.4 FL. OZ.



the saddler's spirit



로버트 테리엔
가나아트센터 회고전

a Big and Small World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현대미술 콘텐츠가 빛을 발하는 요즘, 서울을 찾은 사투 대조적인 스타일의 미국 캘리포니아발(發) 작가 2인에게 눈길이 간다. 몹시 정교하고 섬세한 상징적 이미지의 퍼레이드가 인상적인 래리 피트먼(Lari Pittman), 그리고 의자나 접시 같은 일상의 오브제를 커다랗게 확대한, 그러면서도 극도로 절제된 미니멀한 느낌의 조각으로 유명한 로버트 테리엔(Robert Therrien)이다. 전자는 직접 만나볼 수 있었지만(다음 호에 인터뷰 글이 실릴 예정이다), 후자는 안타깝게도 2019년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다. 그래서 4월 12일 가나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at that time>展은 로버트 테리엔(1947~2019)이 작고한 이후 처음 열리는 개인전이자 작은 회고전의 성격을 띤다. 평범한 일상의 오브제를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의 작품으로 빚어내 관람객으로 하여금 초현실적인 풍경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는 체형의 미학으로 주로 알려진 테리엔의 작업 세계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폭넓고 풍부한 면면을 지니고 있음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전시다. 오는 5월 5일까지.



시원하고 여유 있는 공간 구성 덕분에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사하는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면 조각적인 느낌의 나무 탁자 위에 동글동글한 모양의 작은 오브제가 놓여 있는 모습이 먼저 시야에 담긴다. 전시 작가 로버트 테리엔(Robert Therrien)이 자신의 초상처럼 여겼다는 '눈사람' 조각인 'No title(snowman)'(2018)이라는 작품인데, 마치 반갑다고 첫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테리엔은 눈을 구경하기 힘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했지만 원래 시카고 태생으로 어릴 적 눈사람을 만들던 추억을 자신만의 간결한 이미지로 다듬은 조각으로 표현했다. 함께 전시된 나무 탁자는 2009년 작품 'No title(desk)'로 작가가 이양증스러운 조각을 그 위에 놓아두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듯 첫 전시 색션에는 아귀자기한 소품과 단순미를 품은 드로잉 등 평면 작품도 볼 수 있는데, 후시 테리엔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대표작을 해외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다면 살짝 의외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In a Big Big World'라는 팝송 가사가 절로 떠오를 정도로 커다란 테이블, 접시

등 기념비적 조각 작업으로 흔히 알려져 있어서다. 하지만 그는 작은 작품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소소한 오브제는 물론 드로잉, 사진, 판화 같은 다수의 평면 작



품을 남기는 등 2차원과 3차원 매체를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이번 <at that time>展은 그의 다면적인 작업 세계를 두루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기회다.

#2019년 작고 이후 첫 개인전 'mini-maximalist'?
평면 작업이든 부조든, 조각이든, 그리고 규모가 크든 작은 일상적인 오브제에서 비롯된 로버트 테리엔의 작업은 시각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다. 하지만 걸로 드러나는 단순미와는 다르게 복합적인 추상성을 품고 있다. 기쁨을 담은 캔의 이미지가 그에게는 '예배당'을 상징하는 간결한 대상으로 승화되는 식으로 말이다. 햄 로고에서 따온 귀여운 악마 이미지를 나무 패널, 종이 등 여러 재료에 단순화된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도 있는데(전시 작품에도 있다). 작가는 이에 대해 "내게는 가장 추상적"이라고 강조하며 "악마(이미지)는 아주 많이 변모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형태로만 여겨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명이 모조리 무제(No title)라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테고 말이다(어느 순간 테리엔은 보다 '진절할' 설명을 위한 '부제를



붙였다고 한다). 바로 이런 면모 때문에 테리엔을 미니멀리스트나 개념 미술 작가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일 터다. 사물을 추상적으로 단순화한 작품의 예로 이번 전시에도 소개된 2003년 작품 'No title(Dutch door)'을 빼놓을 수 없다. '더치 도어'는 위아래를 따로 여닫을 수 있도록 분리되는 문으로 3m에 이르는 높이로 확대한 작품. 1980년대 후반부터 베이지, 갈색, 검정 등 여러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드로잉으로 구현되기도 했는데, 가나아트 전시에는 옐로우빛을 머금은 짙은 노란색 작품이 찾아왔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 '더치 도어'가 있었는데, 문이 2개로 나뉘니 아래는 닫혀 있어도 누군가가 윗문을 열고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이번 전시 기획을 맡은 박민혜 큐레이터의 설명이다. '문을 크게 확대한 추상적인 조각은 마치 유년기로 되돌아간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이곳'이라는 현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이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의 잔재를 바탕으로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환상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작품 중 걸장편은 아무래도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녹색의 접이식 테이블과 4개의 의자'(2008)일 것이다. 'No title(folding table and chairs, green)'이라는 제목의 이 거대한 세트(펼치지 않았을 때 의자 높이가 약 2.6m)는 오래된 기구처럼 녹이슨 모습을 하고 있고(정교한 작가의 '칠' 덕분에) 놀랍게도 실제로 접히는 기능성도 갖추었다. 여기서 의자들이 가지런



히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탁자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은 토라져서 자리를 박차고 행 하니 나가버린(접힌 채 벽에 기대어 있는 의자까지 포함해) '있을 법한' 일상 풍경을 연출한 것 이라고. 수줍은 성격이었던 동심 어린 유머를 지닌 작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개알' 포인드다.

#평범하면서도 낯선, 초현실적인 동심의 풍경 속으로
익숙하다 못해 혼란 일상의 물품을 감각을 압도할 만큼, 그래서 다분히 낯설게도 느껴지게 만드는 커다란 조각 작품으로 빚어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작가는 2013년 뉴욕 타임스와 나는 인터뷰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What if people could walk into an environment like that)?"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걸리버 여행기>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에서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주인공'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떤 평론가가 말했듯, 누구나 어릴 때 재미를 위해서든, 실제로 필요해서든 탁자 밑을 인식처로 삼았던 기억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결국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선물'은 (대량생산된 가구가 지닌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보게 하는) 조각 작품이거니와서는 잠시나마 누려볼 수 있는 '동심이 아닐까.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만화적 상상력, 마르셀 뒤샹에서 비롯된 레디메이드 개념과 만나 독창적인 조각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는 로버트 테리엔이라는 인물이 현대 미술사에서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배경에는 바로 늘 관객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들이 생경하지만 아름다운 연극

적인 순간을 경험토록 한 작가만의 철학이 자리한다. 다만 테리엔이 그 같은 동심의 미학을 담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다. 평생 작가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폴 처윅(Paul Cherwick)과 가고시안 갤러리 출신의 관계자 딘 아네스(Dean Anes)의 참여에 따르면 "미술 시장이 커지면서 갤러리로 전시 공간의 규모를 키우면서 대형 작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마침 작기도 스튜디오를 옮기면서(적합한) 작업 환경도 조성됐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작업을 고안하고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한다. "컴퓨터 엔지니어, 용접공, 기계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므로 아웃소싱으로 제작했는데, 단계마다 밀접한 상의를 거쳤고, 현재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접이식 탁자 세트'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스튜디오로 다시 가져와 (녹이슨) 표면을 위한 '칠'을 다시 했습니다. '탁자 세트' 중 현재 미술시장에 나와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합니다(나머지는 대부분 재단이나 미술관 소장이라고)". 이 밖에도 테리엔의 친한만만하면서도 심미적 오라가 출중한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니, '느림'의 미학을 즐기면서 유심히 감상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그중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카트와 짝을 이루는 매혹적인 원판(disc) 시리즈는 개인적인 '취애' 작품이다. 불교 수행법 중 하나인 카시나 명상에서 쓰였던 원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는 이 작품은 모두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카트에 최대 9점까지 담아둘 수 있고 나머지 1점은 벽에 걸도록 하는(물론 디스크를 전부 꺼내뒀도 된다). 작가 특유의 귀여운 발상이 담겨 있다. 글 **고성연**

1 지난 4월 12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로버트 테리엔(Robert Therrien)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커다란 접이식 의자와 테이블 세트. 기능적으로 접힐 뿐만 아니라 살짝 녹이슨 흔적까지 가려지게 반영한 이 시리즈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유일한 세트 작품이라고. No title(folding table and chairs, green)(2008), Paint, steel, aluminum and fabric, Overall dimensions variable. 2 위아래가 따로 열고 닫히는 '더치 도어(Dutch door)'를 3m에 이르는 높이로 확대해 추상적으로 재탄생시킨 작품(2003). 3 남자와 판으로 구성된 작품 앞에 있는 생선 조각의 모습. Photo by Joshua White 4 다양한 색상과 이미지를 품은 원판(disc) 10점과 스테인리스 스틸 카트와 짝을 이루는 매혹적인 원판 세트 작품. No title(Disc cart I)(2007), Cart: stainless steel and plastic, Discs: steel, enamel, wood, cardboard, with silkscreen ink or graphite on each disc 88.3 x 68.6 x 107cm, Courtesy of Robert Therrien Estate 5 작가가 자신의 지하실 같다고 했던 일곱층은 눈사람 조각과 나무 탁자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6 'No title(large wall drop)'(2017), Stainless steel, 50.8 x 24 x 25.4cm, Courtesy of Robert Therrien Estate 7, 8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립 미술관 더 브로드(The Broad, 7번 이미지에 전시된 로버트 테리엔의 대표작이자 1인 1관 전 작품인 'Under the Table'(1994). 전시 공간들 가득 채운 장도로 큰 세트 작품이다(297.2 x 792.5 x 548.6cm). * 1, 2, 5, 7, 8 Photo by SY KO * 3, 4, 6 이미지 제공: 가나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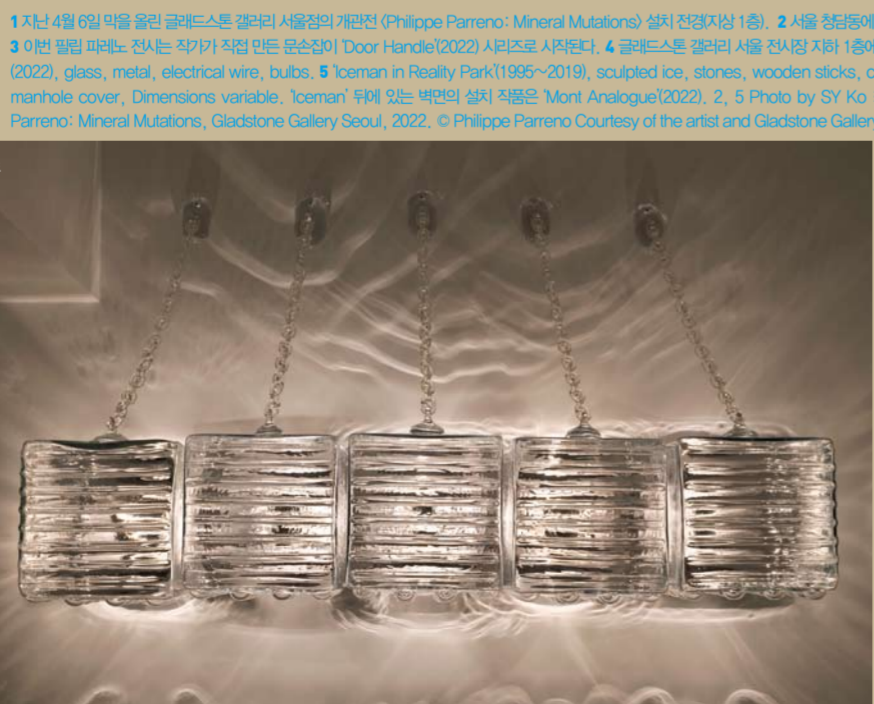
동시대 현대미술계의 첨예한 면면을 반영하는 작가주의로 유명한 글래드스톤 갤러리가 서울에 상륙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브뤼셀, 로마에 지점을 둔 글래드스톤 갤러리가 아시아 시장에 공간을 두는 건 처음이다. 청담동에 자리한 서울점은 글래드스톤의 일곱 번째 지점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단독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꾸렸다. 개관전의 주인공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물론 심미적 오라까지 갖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갤러리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의 손잡이부터 작품으로 연출한 작가의 개인전 <광물적 변이(Mineral Mutations)>가 오는 5월 21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Gladstone in Seoul



아담한 건물 외벽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진 갤러리 공간. 글래드스톤 갤러리 서울점의 개관을 기념하는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의 개인전은 공간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시작된다. 바로 갤러리로 들어서는 문에 달린 비정형의 네모난 손잡이 'Door Handles'가 그 시작점이다. 5개의 검은색 문고리 시리즈는 용암이 급속히 식으면서 생긴 화산암과 천연 유리인 흑요석을 소재로 빚어낸 작품으로 <광물적 변이(Mineral Mutations)>라는 전시명이 말해주듯 공간 전체를 광물적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전시 경험 자체를 하나의 매체로 재해석하는 필립 파레노는 언뜻 단순하면서도 재치 있는 설치 작품으로 유명한데, 이번 서울 개인전에서는 소재를 달리하는 등 기존 작품을 변형한 신작을 선보였다. 전반적으로 '유리의 미학을 활용한 작품 선택과 아가자기한 재미를 주는 공간 구성'이 흥미롭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묘한 녹색으로 빛나는 작품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안쪽 벽면을 뒷배경으로 귀여운 '눈사람'이 서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벽면의 발광체는 'AC/DC Snakes' 작업으로 유리의 일종인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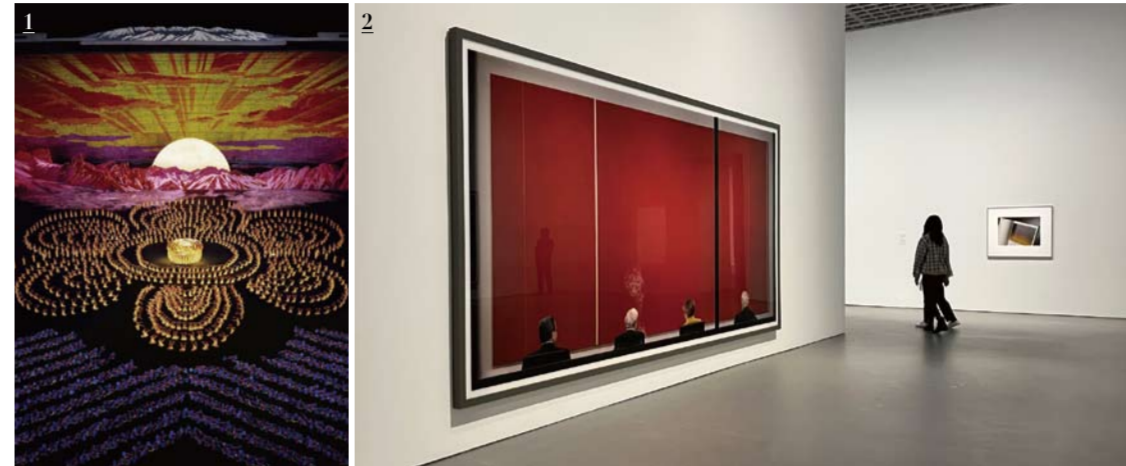
라늄 글라스로 이루어졌다. 'Iceman in Reality Park'라는 제목의 눈사람은 실제 얼음으로 되어 있기에 며칠에 걸쳐 서서히 녹아내리게끔 고안됐다. 맨홀 구멍으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나면 얼음 안에 박혀 있는 화강암 돌과 나뭇가지만 남고, 독특한 향이 퍼진다. 다양한 조류(조류)와 박테리아로 만들어진 지오스 민이라는 분자의 향이 조합되어 분사되는 원리에 따른 작품이다. 눈사람 위쪽에는 동그란 램프가 달려 있는데, 프랑스 작가 르네 도말(René Daumal)이 쓴 미완의 초현실주의 소설 <마운트 아날로그(Mount Analogue)>를 모티브로 삼은 'Mont Analogue'라는 작품으로 시시각각 다채로운 빛을 내뿜는다. 갤러리 내부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작가의 시그니처 작품인 '마키(Marquee)'가 안쪽 벽면에서 신비로운 빛의 변화를 연출해낸다. 이 작품은 원래 사용했던 아크릴 글라스에 포함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Methyl Methacrylate)라는 합성 고분자 대신 모래, 석회석, 탄산나트륨이 결합된 수공예 유리로 제작했다고 한다. 이렇듯 곳곳을 수놓은 작품으로 공간 자체를 새롭게 탄생시킨 필립 파레노는 전체가 유리로 이루어진 버전의 '마키'는 처음이라고 수줍게 설명했다.

필립 파레노 개인전에 이은 아나카 이(Anicka Yi) 전시
전시를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오브제로 보고 공간을 연출하는 필립 파레노는 서울에서 글래드스톤 아시아 1호 갤러리의 첫 무대를 참신하게 구성했다. 글래드스톤 서울을 이끄는 박희진 디렉터는 "공간 자체는 협소하지만 작가들이 작은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된다"며 필립 파레노만 해도 이 공간을 위해 작품을 모두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979년 바바라 글래드스톤이 뉴욕에 설립한 글래드스톤 갤러리는 진취적인 시선과 작가에 대한 끈기 있는 태도로 명성 높다. 20대 초반의 청년 작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망 작가로 발돋움한 매슈 바니를 비롯해 리처드 프린스, 우고 룬디노네, 세실리 브라운, 앤 콜리어, 로제마리 트로켈, 쉐린 네사트 등 쟁쟁한 작가 목록을 꾸리고 있다.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의 예술로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이안 쉑(Ian Cheng)도 글래드스톤 갤러리 소속이다. 다음 전시 작가는 아나카 이(Anicka Yi).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 예술과 과학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런던 테이트 모던의 '현대 커미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글고성연**



1 지난 4월 6일 막을 올린 글래드스톤 갤러리 서울점의 개관전 (Philippe Parreno: Mineral Mutations) 설치 전경(자칭 1층). 2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글래드스톤 갤러리의 건물 외관. 3 이번 필립 파레노 전시는 작가가 직접 만든 문손잡이 'Door Handles'(2022) 시리즈로 시작된다. 4 글래드스톤 갤러리 서울 전시장 지하 1층에서 선보인 필립 파레노의 작품 'Marquee'(2022), glass, metal, electrical wire, bulbs. 5 'Iceman in Reality Park'(1995~2019), sculpted ice, stones, wooden sticks, corian plinth with found Korean metal manhole cover, Dimensions variable. 'Iceman' 위에 있는 벽면의 설치 작품은 'Mont Analogue'(2022). 2, 5 Photo by SY Ko * 1, 3, 4 Installation view, Philippe Parreno: Mineral Mutations, Gladstone Gallery Seoul, 2022. © Philippe Parreno Courtesy of the artist and Gladstone Photo, Chunho Ahn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한 요즘, '발췌' 파는 게 아깝지 않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가 앞다퉈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확장 이전한 리만버런 서울의 래리 피트먼(Lari Pittman) 개인전과 탕 쉐넬포러리 아트 서울 스페이스의 자오자오(Zhao Zhao) 개인전 등에 이어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에서는 현대 사진의 거장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의 대규모 개인전이 신작까지 앞세워 국내 최초로 막을 올렸고, 국제갤러리에서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각광받는 예술가 우고 룬디노네(Ugo Rondinone) 개인전이 서울과 부산, 두 지점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1 평양 VIP(Yongyong VII)(2017/2007),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2007년 작가가 직접 평양을 방문해 촬영한 평양 연경. 아모레퍼시픽에서 10만 명 넘는 공연자가 이루어진 시각적 장르는 북한의 집단성과 특수성을 보여준다. 2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에서 진행 중인 안드레아스 거스키展 설치 풍경. 왼쪽 작품은 바넷 뉴먼의 작품인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함을 근대 독일 총리를 지닌 게르하르트 슈뢰더, 헬무트 슈미트, 앙겔라 메르켈, 헬무트 콜이 동시에 보고 있는 장면으로 연출한 작품 '희상'(2015). Photo by SY Ko 3 라인강변 목초지에서 가리 두기를 하면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신작 '얼음 우물' 걷는 사람(Eiskäuler)(2021). ©안드레아스 거스키, 스투르스 마거스 제곱 4 라인강변 목초지에서 가리 두기를 하면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신작 '얼음 우물' 걷는 사람(Eiskäuler)(2021). ©안드레아스 거스키, 스투르스 마거스 제곱



오디지 제곱 (Eiskäuler)(2021) (APMA)



우고 룬디노네 <nuns and monks by the sea>展 국제갤러리 서울 & 부산

'돌'이라는 소재가 지닌 힘은 우고 룬디노네(Ugo Rondinone)의 손길을 만나면 특별한 미학적 오라를 풍는 듯하다. 2013년 뉴욕 록펠러 센터 광장에서 'human nature'라는 이름으로 처음 우고 룬디노네의 기념비적 청석 조각 작업이 소개된 이래 2016년 네바다 사막 위에 설치된 돌탑 형상의 개편 작품 'Seven Magic Mountains'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올봄,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그의 돌 조각이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제갤러리 K3관의 6m 정도 되는 높은 층고를 활용한 5점의 'nuns and monks' 연작은 언뜻 커다란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안이 비어 있는 청동 조각이다(본래 작은 크기의 석화암 모형으로 제작된 작품을 스캔하고 확대해 청동 주물로 다시 탄생시킨 것이다). 제목이 말하듯, 성인(聖人)의 신비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우상적 상징성으로 찻누르기보다는 관람객을 환영하는 '열린 존재'를 의도했다고 한다. 작가는 언젠가 일정한 색조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치환한 조영만이 작품을 비추도록 전면 유리창을 팔타로 갈사 빛을 되도록 차렷했다. 그리고 모래 자국 같은 무늬를 띤 진화색의 시멘트를 전시 공간 전체에 발라 비파와 벽이 단일한 콘크리트처럼 보도록 했다. 이는 마치 구름 덕분에 그들이 살짝 진노감을 듣게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날씨에 대한 암시는 부산의 전시 공간에서도 이어진다. 역시 유리창에 자외선 차단 필터를 씌운 공간에 작은 'matttuck' 회화 시리즈 17점이 진중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작가의 스튜디오가 있는 뉴욕 롱아일랜드 메타에서 본 노을을 묘사한 이 일중맞은 소품 시리즈는 자연경을 그대로 차용한 상세한 수채화 연작으로 각각의 작품은 오로지 세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글고성연**

전시명 우고 룬디노네 개인전, (nuns and monks by the sea)
전시 기간 5월 15일까지 홈페이지 www.kukjegallery.com

#<Andreas Gursky>展 APMA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예술의 한 장르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은 독일 작가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이 국내 최초로 열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작가가 내한까지 했음에도 기자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지만 신작 2점까지 포함해 40여 점의 출중한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콘텐츠' 자체로도 충분히 그 안목을 드러낸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안드레아스 거스키는 촬영한 이미지를 조합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기법으로 사진의 회화적 가능성 등 매체의 확장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로 공간이나 이벤트같이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장소를 포착해 문명이 이끄는 개편 사회 속 개인의 존재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파리, 몽파르나스(Paris, Montparnasse)(1993), '99센트(99 Cent)(1999, 리마스터 2009) 같은 대표작을 포함해 1980년대 중반 초가작부터 평양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평양 시리즈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파트 몰류 센터를 촬영한 '아파트'(2016) 같은 시각적 스펙터클과 더불어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제작한 2022년 신작까지 총 40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신작의 경우, 뒤셀도르프 근처 라인강변 목초지에서 얼음 우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얼음 우물' 걷는 사람(2021)은 피터 브뤼헬름의 고전주의 주제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코로나 가리 두기'로 인한 일상의 풍경을 담았다. 또 다른 신작인 '스트 레이프'(2022)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키 코스인 엄청나게 가파른 경사를 평면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모니타에서 보이는 극적인 충돌의 순간은 직접적인 경험과 복제된 경험의 관계를 탐구하게 한다.

전시명 <Andreas Gursky> 전시 기간 8월 14일까지
홈페이지 <http://apma.amorepacific.com>



1, 2 국제갤러리 서울점(K3)의 우고 룬디노네 개인전 (nuns and monks by the sea)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3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전시된 우고 룬디노네의 'matttuck' 시리즈, 'si ebletfebruarzweitausendzweizweizwanzig'(2022), Watercolor on canvas, artist's frame 22.9 x 33cm, Courtesy of Studio Rondinone 4 국제갤러리 부산점 우고 룬디노네 개인전 (nuns and monks by the sea) 설치 풍경. Photo by SY Ko



(여자) 더블 크레이프 소재의 V넥 드레스,
 페이퍼트 가죽 소재의 플랫폼 샌들,
 메탈 소재의 이어링과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망 by 인토니 바카렐로.
 (남자) 오버사이즈 투 버튼 재킷 98만원,
 80트 오버사이즈 셔츠 49만원, 데님 팬츠
 가격 미정 무용, 블랙 메탈 장식의 웨스턴 부츠
 가격 미정 샬린느 옴 by 에디 슬리먼.



블랙 & 화이트의 모던함과
 데님의 시크한 반전 매력이 함께하는
 2022 봄, 여름 커플 룩.
 photographed by cho sung hyun

THE COUPLE

장소: 판교 KCONETTI 촬영물: 20-20



(여자) 화이트 컬러 메탈 포플린 소재의 드레스, 스틸링 살버 소재의 이어링과 링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남자) 페라이트 컬러 오버로크 스타치가 톤보이는 니트 데님 소재의 재킷 4백62만원,
 스트레이트 팬츠 3백68만5천원, 블랙 패디드 카세트 백 4백32만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남자) 아이보리 라지 그레이너 리더 칼라 블라우즈, 화이트 플루이드 포폴린 레굴러 칼라 셔츠, 크림 울 실크 포폴린 팬츠, 화이트 집업 부츠 모두 가격 미정 **폴드**.
 (여자) 다크 인디고 오가닉 데님 재킷 가격 미정 **디올**, 울더 스트랩 장식 뷁스타에 트레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LV 아이코닉트 샌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여자) 루스 칼라 새틴 스펀서 재킷, 플로럴 슬리브리스 재킷, 모노그램 패치 데님 쇼츠, 블랙 윤라이트 앵글부츠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블루 데님 슬리브리스 롱 1208찬원 **인스틴트링크**.
 (남자) 핑 장식의 블랙 재킷 39만원대 **판디**, 데님 팬츠, 블랙 메탈 디테일의 웨스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셀만느 옴므 by 에디 슬리먼**.



(여자) 루스 칼라 새틴 스펀서 재킷, 플로럴 슬리브리스 재킷, 모노그램 패치 데님 쇼츠, 블랙 윤라이트 앵글부츠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블루 데님 슬리브리스 롱 1208찬원 **인스틴트링크**.
 (남자) 핑 장식의 블랙 재킷 39만원대 **판디**, 데님 팬츠, 블랙 메탈 디테일의 웨스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셀만느 옴므 by 에디 슬리먼**.

(여자) 데님 리플 드레스 2백20만원
 로아에, 블랙 브리시드 가죽 슬링백
 캠프스 1백57만원 프리다,
 (남자) 블루 데님 재킷 2백만원데,
 블루 데님 팬츠 1백만원데 모두 렌디,
 블랙 로안 스티드 터틀 슬리드
 70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여자) 베이지 바이커 재킷 3백29만원, 화이트 브라톱 56만원 모두 토즈,
 (남자) 베이지 바이커 재킷 3백29만원, 베이지 버튼다운 칼라 셔츠 50만원, 화이트 배기 팬츠 99만원 모두 토즈.



(여자) 블랙튜브 드레스 가격 미정 **셀린노**, 비브스코 사이드 스트라스 버클 뿔 2백32만원 **로저 비비에**.
 (남자) 라인스톤 & 스타드 장식 데님 재킷과 디스트로이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둘레한바나**, 화이트 집업 부츠 가격 미정 **틀 포드**.

(여자) 세브론 트윈드 소재의 크롭트 재킷, 블랙 보디수트, 스카이 블루 데님 소재의 플레어 팬츠, 파이퍼트 가죽 소재의 플랫폼 신들, 메탈 소재의 이어링,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남자) 블랙 레더 베스트 95만2천원 **무용**, 블랙 셔츠, 블랙 버클 스트랩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데님 팬츠 11만8천원 **인스틴트필드**.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김은혜, 안승준 (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르메스 02-542-6622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쥘리 02-514-0652
 다들 02-3480-0104
 토즈 02-3438-6008
 프라다 02-3218-5331
 발렌타노 가리바니 02-2051-4653
 로아베 02-6905-3470
 루이 비통 02-3432-1854
 틀 포드 02-6905-353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둘레한바나 02-6953-4115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셀린노, 셀린노 울트 by 에디 슬리먼 02-549-6631
 무용 02-537-8996
 인스틴트필드 070-4237-9304



Color of adventure

소재부터 디자인, 워치메이킹 기술력까지 고루 갖춘 오메가. 이번 시즌엔 컬러를 더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 오묘한 매력의 다이얼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는 남성 워치, 스피드마스터와 액세서리로 손색없는 개성에 우아함까지 부여할 여성 워치, 컨스텔레이션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PEEDMASTER

본래 모터 레이싱을 위해 제작한 오메가의 시그니처 워치 스피드마스터는 달에 착륙한 최초의 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탐험기를 꿈꾸는 남성들에게 마스트 해브 워치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2022년을 맞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선보인다. 오메가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9908이 동력을 제공하는 여덟 가지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로 구성했으며 높은 기술력을 담고 있음에도 슬림한 케이스와 정교한 베젤 디자인으로 더욱 클래식하고 모던한 감성을 부여한다.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57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0.5MM 볼수족 깊이 빠져드는 딥 블루와 레드 다이얼에 아라베스크풍 재패아 웨이브의 로동 도금 마감 공정으로 세련된 느낌을 전달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케이스 사이즈에 미닛 핸즈 및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핸즈와 데이트 기능, 스몰 세컨즈 카운터까지 갖춰 편의성 또한 높았다. 1천7백20만원. 문의 02-6905-3301

Constellation Aventurine

편안함과 실용성뿐 아니라 우아함과 패셔너블함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여성을 위한 워치, 컨스텔레이션 어벤추린. 어벤추린은 자연의 힘을 지닌 천연 광물, 퀴츠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이 컬렉션의 모든 다이얼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젤스톤으로 제작해 화려함을 더한다. 스톤마다 고유한 패턴을 지니 모든 워치가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다양한 형태의 인클루전으로 특유의 클리터리움을 선사한다. 12가지 새로운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모든 에디션에는 그린, 레드 또는 블루 컬러의 천연 어벤추린 스톤 다이얼을 장착했다.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여성의 손목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29mm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깔끔한 느낌을 주는 스테인리스 스틸 및 세드나™ 골드 소재로 이루어졌다. 베젤과 인텍스에는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함을 부여한다. 1천7백20만원. 문의 02-6905-3301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크로노스코프 쿼크-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3MM 오메가의 전설적인 스피드마스터 디자인과 1940년대에 출시한 오메가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 디자인의 코드를 따르는 모델, 지름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타카미터 스케일 배열을 두르고, 필스미터 스케일과 달레미터 스케일을 다이얼에 새겨 특유의 나선형 트랙 패턴을 그린다.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 카운터를, 3시 방향에는 60분과 12시간 카운터를 올렸다. 향자성이 뛰어난 오메가 쿼크-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9908로 구동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6906-3301

바세르 콘스탄틴 오버시즈 듀얼 타임 푸셔를 가볍게 누르면 32시간으로 시간을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는 듀얼 타임피스. 아워 핸즈는 여행자의 현지 타임 존을 표시하고, 삼각형 화살표 모양 핸드가 휴대임을 표시한다. 말테 크로스를 연상시키는 베젤 디자인과 브레이슬릿을 통해 매우 특유의 미감으로 완성된 우아한 비주얼과 실용성이 돋보인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150m 방수 기능을 갖춘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버 5100 DT에서 동력을 얻는다. 3천5백만원대. 문의 1670-4606

IWC 파인먼트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비행기 계기판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카운터로 컴플리케이션을 채운 모델. 3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에서 가장 실용적인 날짜창을 올렸다. 칼럼 휠을 탑재한 견고하고 정밀한 IWC 자체 제작 69385 칼라버로 구동하며, 미세 조정 바늘을 장착한 타이퍼드링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옵션으로 출시한다. EasyX-체인지 시스템 덕분에 카스트킨 또는 라바 스트랩으로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 9백40만원. 문의 1670-7363

쇼피드 알파인 이글 41MM 알프스산맥을 내려보는 독수리 눈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구현한 베르나나 그 레이 다이얼이 특징으로 강한 한테 남성의 모습을 그린다. 무브먼트는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시간당 4Hz 진동수로 정확도를 높인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의 쇼피드 01.01-C 칼라버로 구동한다. 2천54만원. 문의 02-6906-3390

볼가리 옥토피아노 S 크로노그래프 GMT 지름 43mm의 대담한 팔각 케이스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 제품의 빈전 메커니즘 두께 3.3mm의 울트라-스킨 무브먼트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얇은 두께와는 반비례하는 강한 힘을 지닌 BVL 318 칼라버로 구동하며,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2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GMT 기능을 갖추었다. 9시 방향의 푸시 버튼으로 로컬 타임 존을 조정한다.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2천1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워털로 리빙 인더그라프 42MM 티타늄 일렉트릭 테일러드 브레이슬릿 디자인이 상징적인 타임피스로, 기법과 스퀘어에 강한 티타늄 소재를 적용했다. 케이스와 대피되는 블랙 비저로 연결한 스텔-넬론 무브먼트가 정밀한 분위기를 지어낸다. 파워 리저브를 72시간으로 끌어올린 HUB1280 유닛과 매뉴얼러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칼라버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수심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3천2백만원대. 문의 02-2118-6208

에디터 이주이

Code Steel

강인하고 순수한 면모를 지닌 남성 스틸 브레이슬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Explore Glacier

이번 워치스 & 윌더스에서 몽블랑은 브랜드의 근간이자 귀중한 유산인 탐험 정신으로 무장한 시계들로 눈길을 끌었다. 하늘과 땅, 바다를 막론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발자취를 남기고자 노력하는 탐험가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영감을 주는 시계로,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뛰어난 역량과 장인 기술을 거침없이 뽐냈다.

탐험가들의 손목에서 발현한 에베레스트 정복

워치 메이킹의 기술력과 예술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몽블랑은 올해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마스터피스인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젠 LE290'을 고조시켰다. 고정밀 워치로 몽블랑이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이 타임피스는 세계 최고봉에 무산소 등반하는 선구적인 산악인들에게 영감을 받았다. 제로 옥시젠이라는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 시계 내부를 무산소 상태로 밀폐해 높은 내구성과 정밀도를 지닌다. 또 -50°C라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특별 윤활유를 사용해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정비를 작동시켜야 하는 탐험가들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산악인의 다양한 작업의 경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워치로서 몽블랑이 새롭게 선보이는 칼라버 MB 29.27는 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시간의 정확성을 높였다. 2시 방향의 푸셔를 통해 시작과 정지를, 4시 방향의 푸시 피스로 크로노그래프를 원점으로 리셋, 재구동하는 플라빅 기능을 덧붙였다. 그라티 부이세(Gratté Boisé) 기법으로 실제 빙하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에 띄는 블루 다이얼의 3시 방향에는 30분 단위를 알려주는 보조 인디케이터를 더했다. 그리고 9시 방향에 있는 크로노그래프 아워 링이 컴플리케이션을 이룬다. 여기에 고유한 월드 타임 기능으로 근간이 되는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의 유산을 잇는 동시에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분한 회전 자유분 모양의 인디케이터, 24시간 스케일, 낮밤 인디케이터, 디스크로 표시하는 날짜창 등으로 산악인을 위한 장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 이처럼 탁월한 기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산악인이 장비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티타늄으로 케이스를 제작해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또 양방향식 플러버링 세라믹 베젤이 산악에서 방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려 5백 시간이라는 테스트를 거친 이 워치의 정확성은 현실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는 5월 남스디이 푸르자(Nimsdai Purja)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을 때,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젠 LE290 워치를 착용하고 등반할 예정이다. 1980년 단독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인물인 리안홀트 메스너의 뒤를 잇는 인물로 영국군 내 최고 엘리트 부대 해군 특전대(SBS) 출신이자, 등반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대령제국 훈장(MBE) 소유자다. 남스디이 푸르자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등반해야 하는 2천9천31피트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2백90점 한정 출시하며, 시계가 무산소 상태로 완전하게 밀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무산소 인증서를 함께 제공한다. 케이스 백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양쪽에 몽블랑의 정확도 관련 기록과 압적을 기념한다.



© sponsored by MONTBLANC



1 고도의 환경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함,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젠 LE290. 2 몽블랑 1858의 영감을 이룬 첫 다이아 워치,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트메터 데이트. 3 2백90점 한정 출시하는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젠 LE290 케이스 백에는 에베레스트산이 새겨져 있다. 4 남극 대륙에서 볼 수 있는 초록빛 빙하에서 영감을 얻은 그린 바진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트메터 데이트 다이얼. 5 라바 스트랩을 적용한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트메터 데이트의 블랙 다이얼 버전.

탄탄한 역사로 무장한 선구적 기술력

탁월한 성능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몽블랑 1858 컬렉션의 DNA를 고수하며, 가장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한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트메터 데이트'는 첫 다이아 워치로서 리안홀트를 한층 강화한다.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담긴 무브먼트 MB 24.17은 다이아 워치에 필수적인 기능적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시계 가 아닌 ISO 6425 표준에 부합한 인증을 받은 다이빙 시간 계측기로서 전문 장비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빙하를 모티브로 기존 미학적 코드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착수한 이 모델은 몽블랑 산자를 비롯해 극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빙하 색상을 나타내는 블루, 그린, 블랙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컬렉션을 구성한다. 블루 아이스는 기포에 의해 블루빛을 내는 몽블랑산의 빙해를 모티브로 했으며, 미세한 눈 조여에 의해 초록빛을 띠는 남극 대륙에서 영감을 얻은 그린 다이얼, 그리고 얼음 내에 함유되어 기포가 있어 빛을 많이 흡수해 어두운 빛을 띠는 블랙 아이스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기에 메타에 다이아너들은 몽블랑 산자의 시모니 계곡을 통해 메르 데 글라시(Mer de Glace)로 올라 갈 때 수천 년 동안 얼어붙은 결정체가 서로 얽힌 빙하의 질감을 다이얼에 구현해 미치 못할 만큼 깊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산비탈로 분위기를 부여했다. 다이아 워치로서 어두운 산맥에서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핸즈와 인덱스 및 12시 방향의 도트에 아광 물질인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를 얹어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가시성을 발휘한다. 각 타임피스는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및 비아겔러 세라믹 단방향 회전 베젤, 그리고 방산과 빙하 아래 물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빙을 3D 입각한 케이스 백으로 제공한다. 또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시계 파우저를 함께 제공해 착용자가 정비를 잘 챙겨서 다음 모험을 훌륭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1670-4810 에디터 이주이

Face the Sun

태양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길 것. 프리미엄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세이도 언비안 비어인먼트 트리를 뷰티 스키퍼 에디션** SPF 50+ 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초미세 먼지 흡착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광노화 및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스위스 알프스 고산지대 자생식물인 노블 에델바이스 추출물을 함유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스키퍼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50ml 29만4천원. 문의 02-511-6626

라프라이리 셀룰라리 스위스 UV 프로텍션 베일 SPF 50 인장적인 물리적 필터와 화학적 성분을 혼합한 자외선 차단제로 모든 종류의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할 뿐 아니라 광노화 및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스위스 알프스 고산지대 자생식물인 노블 에델바이스 추출물을 함유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스키퍼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50ml 29만4천원. 문의 02-511-6626

샤넬 CC 크림 수퍼 액티브 컴플렉스 코렉션 SPF 50 정교한 파르먼트를 함유해 적은 양으로도 피부를 환하게 보정해주는 CC 크림. 자외선 차단 자수가 높아 자외선 차단제 대응으로도 손색없다. 30ml 7만9천원. 문의 080-332-2700, www.chanel.com

시슬리 선외아 G.E. SPF 50+ 자외선 차단제. 아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과 디크 스킵 예방에 좋은 성분을 함유했다. 자외선으로 인한 복합적인 피부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민능 선 프로텍션 50ml 28만원. 문의 080-549-0216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UV 마스터 프라이머 베이지 SPF 40, PA+++의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하는 프라이머. 쫄쫄한 텍스처가 모공을 매워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정돈해준다. 30ml 7만6천원. 문의 080-022-3332

클레르보 보메 UV 프로텍티브 크림 SPF 50+ PA++++ 우수한 자외선 차단력으로 광노화를 예방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두 가지 형태의 안티폴루션 파우더 입자로 미세 먼지나 황사 등 유해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그뿐 아니라 트러블 항산화 효과로 피부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50ml 15만원. 문의 080-564-7700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프로 멀티 디펜스 UV 플러시 SPF 45 PA++++ 100% 미네랄 베이스 선크림으로 피부 위에 가볍게 밀착되어 살기만 배일을 씌움으로써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선사한다. 수분감 있는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끈적이지 않고 건조한 걸 피부를 촉촉하게 가른다. 30ml 6만1천원. 문의 02-6971-3212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차례대로) **오리잔스 닥터 외일™ 메가비전 파워 세럼** 탁월한 진정 효과를 지닌 차가비섯과 양자비섯, 그리고 동충하초를 최적으로 배합해 선보이는 수딩 페이스 세럼이다. 사뭇된 베일을 함유해 피부 탄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50ml 9만9천원. 문의 02-3440-2783

고다리 레스베라트롤-리프트 인스턴트 퍼밍 세럼 포도나무에서 추출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피부를 탄탄하게 가른다.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며, 보습 효과가 뛰어난 스펀디 덕에 피부를 편안하게 다룬다. 파란색, 살몬 등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97% 식물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30ml 8만6천원. 문의 02-6011-0212

샤넬 N°1 드 샤넬 레드 캐멜리아 세럼 레드 캐멜리아의 향신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고농축 세럼. 주름, 모공, 탄력 등 다섯 가지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광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제형. 30ml 15만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라프라이리 화이트 캐비아 에센스 엑스트라오디네어 고유의 골드 캐비아 추출물과 이소플루비론 펩티드 콤플렉스, 그리고 루미노스 성분을 담아낸 알루미네이팅 에센스 로션. 탁월한 파랑과 깊은 보습 효과를 발휘하며,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150ml 58만원. 문의 02-511-6626

클레르보 보메 브라이트닝 세럼 수프림 심해에서 추출한 알테르모나스 발효 추출물과 4MSK 성분이 주축이 되어 디크 스킵을 줄여주고, 죽은 각질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색소침착을 완화해 칙칙한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주름 개선 능력과 24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보습력까지 갖췄다. 40ml 38만원. 문의 080-564-7700

엘레미스 프로 콜라겐 마린 모이스처 에센스 바닷속에서 추출한 콜로이드, 파디나 피보닌, 포피리디움 조함한 특유의 마린 펩티드가 피부 속을 갈라준다. 무엇보다 스키퍼 다음 단계에서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피부 컨디션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점을 지녔다. 100ml 11만4천원. 문의 02-2054-0500

데코르테 뉴 리포솜 어드밴스드 리피드 세럼 보습과 광채, 광채 개선을 이루는 안티에이징 수분 세럼으로 1병에 약 1.3개의 초미세 미끈 사이드 리포솜 캡슐을 담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위에 촘촘하고 빈틈없이 녹아들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다마, 일레르기, 노코메드제닉 등 다섯 가지 테스트를 완료한 이 세럼. 50ml 13만9천원.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이주이**

Base hit

에센스 하나로 해결하는 불철 피부 고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LIVE THE JOY

FRED

FORCE 10 COLLECTION